만해 · 무산, 계보학으로 살피다

고영섭 교수, 8월 11일 만해학회 학술세미나서

두 선지식 생애 · 사상 비교
승려 · 문인이란 공통점 지녀
주요 시어들 지향점 같아

만해-화엄선, 무산-임제선
각 佛說 · 祖設 상이함 존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한국 독립운동사와 문학사는 물론 근대불교 운동에도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만해 스님의 문학 혼과 사상을 선양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친 설악 무산 스님(1932~2018)은 수행자이자 시조시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다. 근대와 현대를 관통한 두 선지식의 연속 · 불연속성을 계보학으로 살펴본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8월 11일 인제 만해마을 만해학교 세미나실에서 '만해와 설악 조오현'을 주제로 열린 만해학회 제19회 학술세미나서 '만해 봉안과 설악 오현의 연속과 불연속'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연결 지점을 고찰했다.

고영섭 교수는 그간 논의돼 온 만해의 계보학은 "철학 · 사상 · 지성 · 문중의 계보학"이 중첩돼 있음을 전제했다. '만해와 그의 제자들'로 거론된 무호, 범산, 춘성, 무산 등은 대일항쟁기 불교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구심이었던 만당의 당수 만해를 중심으로 활동했거나 더러는 그의 입적 이후 그의 정신을 계승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중 무산 스님은 앞선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지점에 서 있다. 무산 스님은 직접 교류보다 만해의 거처였던 백담사에 주석하면서 선승과 시승으로


만해 스님(1879~1944)


무산 스님(1932~2018)

서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해서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시맥과 선맥에서 두 선지식의 연속 · 불연속성을 찾았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 스님이 "의지와 지조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애국지사'라는 스님을 표상하는 수식어는 "시인과 선승을 통섭하는 꼭지점이 된다"고 봤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의 선맥은 임제선맥을 이어받은 청허계의 5대손인 환성 지안의 12세손이자 청허의 16세손"이라며 "그의 살림살이는 교법의 집대성이자 붓다의 연화장 장엄세계를 향상일로로 그려온 '화엄선풍'"이라고 분석했다.

시맥에 대해서도 "〈유심〉에 실린 '심'과 '님의 침묵'에서 보이는 '님'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라며 "그가 보여준 부드러움의 시학과 강렬함의 미학은 만해 시의 특징"이라고 평했다.

무산 스님은 선맥에 있어서는 만해와 차이점을 보인다. 고영섭 교수는 "무산 스님은 선교겸수의 살림살이를 보여준다"면서 "그의 선맥은 임제선맥을 이어받은 청허계의 5세손이 되는 환성 지안으로부터 법맥을 이어 받은 용성(진종)의 4세손이자 청허의 9세손이 된다. 그가 추구한 선지는 살불살조의 살림살이로 그려온 임제선의 가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해 스님의 주요 시어인 '님'과 '달인', 무산 스님의 '어린 양'과 '유랑승' 등은 상통한다는 게 고영섭 교수의 주장이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와 무산 스님은 승려이자 문인으로 이들은 '님'과 '달인', '어린 양'과 '유랑승' 등의 시적 자아가 상통한다"고 주장하면서 "만해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님'은 무산이 높게 실현해 온 '달인'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구현해 온 '님'과 '달인'은 만날 뿐만 아니라 통했다. 그것은 출가 초기에 비구 걸사가 갖는 겸허한 마음에서 통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선지식이 추구한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없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시적 자아가 상통 · 상이하는 지점에서 승려와 시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며 해탈의 삶을 추구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만해학회 학술세미나는 만해학회의 '만해의 계보학' 주제 5번째 기획으로 △조오현의 〈백암록〉(1997), 〈무문관〉(2007)의 가르침과 즐김의 뜻(한명환 · 순천향대) △조오현의 선시 연구(윤재웅 · 동국대) △무산 십현시에 나타난 무애와 역설의 시학(이지엽 · 경기대) △조오현의 일반시론(이동재 · 대진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

통계 데이터로 분석한 초기경전

주목! 학술서- 일아 스님의 〈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

흔히 부처님의 설법을 팔만 4천 법문이라고 한다. 그 방대한 법문 안에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무수한 사람들과 주석처들이 등장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가져봤을 의문. 부처님은 어느 사찰에 가장 많이 머무셨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까. 초기불교 전문가인 일아 스님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서를 내놨다.

일아 스님의 〈부처님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초기경전 통계 분석 연구서로 맛지마 · 디가 · 상윳따 · 앙굿따라니까야, 5434개의 초기경전 연구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로 어디에 머물렀으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법을 설했는지를 매우 촘촘하게 분석하고 있다.

통계에 따라 도표를 그려서 비교하였고, 자료마다 특성을 고려해 높은 빈도수를 표시했으며, 승원과 각 장소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 장소들을 다시 인도 지도에 표기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주석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파악하게 했다. 또한, 빈도에 따라 경전에 등장하는 중요인물 6명의 존자와 2명의 비구니, 대화상대자로 나오는 재가자 6명을 선별해 그 면모를 살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초기경전 통계 연구서인 〈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는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은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각각의 경전에 나타난 △장소 △중요인물 △대화상대자 △설법형태를 빈도수에 따라 통계표를 작성했다.

제2편은 니까야 각각에 나타난 설법 장소에 관한 설명이다. 설법 장소로 가장 중요한 기원정사를 자세하게 다뤘으며, 그 외의 승원과 각 니까야에 나오는 장소들도 모두 설명했다.

또한, 경전 자료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안내판 자료나 그 외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하여 폭넓게 조망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경전에 언급된 내용에서부터 바르후뜨 탑과 산찌 탑의 각문 자료, 각 주석서에 언급된 자료, 알렉산더 커닝햄의 고고학적 발굴 자료, 법현의 불국기와 현장의 대당서역기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빠알리 니까야의 특성을 도출한 점이 눈길을 끈다.



4부 니까야 5,434개 경전 연구
설법처 · 대화인물 등 통계 분석
도표 · 지도 시각화… 파악 용이

제3편은 니까야에서 파악된 각각의 통계 자료에 따라 지도에 설법 장소를 표기했다. 이는 얼마나 다른 장소에서 부처님이 머무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제1편과 2편에서 살펴본 통계를 바탕으로 상윳따니까야에는 총 77곳의 장소가, 맛지마니까야에는 46곳, 디가니까야에는 24곳, 앙굿따라니까야에는 60곳의 장소가 기록됐다.

마지막 제4편은 니까야에서 검토한 '중요인물 빈도수 도표'에 의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존자 6명과 중요한 비구니 2명을 선별해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스님이 통계를 통해 밝힌 중요 존자는 사리뿟따 존자, 아난다 존자, 마하목갈라나 존자, 마하깟짜나 존자, 마하깟사빠 존자, 아누룻다 존자이며, 중요 비구니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 케마 비구니이다.

중요 재가자로는 아나타삔디까 장자, 위사카 재가녀, 빠세나디 왕, 빔비사라 왕, 찟다 장자, 지와까 꼬마라밧짜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서에 대해 일아 스님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인 '니까야의 도표와 그림표'를 좀더 보충해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완벽을 도모하다보니 방대해졌다"면서 "이 연구서가 부처님의 설법 배경에 관련한 자료로서 좀 더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월산 대종사 삶 · 사상 조명 '본격화'

월산문도회 · 대각사상硏 9월 1일 학술세미나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성림당(聖林堂) 월산(月山) 대종사(1913~1997, 사진)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국사 월산문도회(대표 성타)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금오문중의 위상부터 월산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월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월산 스님의 선사상(1)'을 통해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월산 스님의 수행 정신을 살필 예정이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을,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월산 스님과 불국사 선원'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불국사 월산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은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 사상, 수행과 포교에 담긴 업적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조계종 발전과 불국사 중창을 통한 불교문화 진흥 공헌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13년 함경남도 신흥서 태어난 월산 대종사는 194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신흥사 · 동화사 · 법주사 · 불국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장 · 원로회의 의장등 종단의 주요 종무직을 역임했다. 월산 대종사는 경허-만공-금오로 이어지는 임제선사의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으로 한국 선종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신성민 기자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YESGOOD.CO.LTD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NO 옵션! NO 추가경비!
미얀마는 옵션 및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8월~9월 직항
실속상품: 165만원 (3성 호텔)
고품격상품: 179만원 (5성급 호텔)
포함: 국제선(KE직항), 호텔, 식사 업(한식, 현지식), 국내선 4회, 가이드 기사 경비, 생수, 입장료, 불자가이드
*미얀마 성수기 10월~2020년 3월
상품판매가 175만원~ 부터*
((김해공항 출발 가능))

중국 불교 4대 성지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불교의 꽃을 피운 스리랑카!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
시기리야-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르
-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